총화종, 화쟁의 지혜로 갈등 넘어 상생으로

10월 17일, 총본산 실상사서
사회적 약자와 화쟁문화축제
화쟁문화 체험 · 산사음악회 등

유재상 충청지사장



대한불교총화종은 10월 17일 총본산 영동 실상사에서 '한 마음, 한 꽃 피우기' 화쟁문화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시대, 총화종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생과 화합을 모색하는 화쟁의 장을 펼쳤다.

대한불교총화종(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10월 17일 총본산 영동 실상사에서 '한 마음, 한 꽃 피우기' 화쟁문화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실상사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축제는 원효 대사의 화쟁사상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생각과 문화를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와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상생과 화합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화쟁은 단순히 갈등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주장을 깊이 경청하고 그 속에 담긴 진실을 서로 융합하여 더 큰 하나를 이루는 지혜"라며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의 벽은 허물어지고 사회적 통합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는 충청지사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한 송이 꽃은 작아 보이지만 많은 꽃이 함께 피어나면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듯,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의 자비로운 마음이 지역사회와 이웃을 밝히는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총화종은 종단의 미래비전 선언을 통해 '상구보리하화중생'의 현대적 구현을 위한 세 가지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선언문에는 정법의 일상화를 통해 현대인의 삶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기후위기와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의 고통에 응답하는 자비 종단을 구현하며, 디지털 시대의 기술환경을 활용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미래형 포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교문화와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감사패는 총화종 복지원장 조향스님, 총무원 재무부장 수불 스님, 현대불교신문 유재상 충청지사장에게 주어졌다. 또 종단 발전에 기여한 경남교구 혜원암 주지 명혜 전법사에게는 최고 명예 법계인 대법사 법계가 수여됐다.

순천 동화사 극락전 밝힌 53불

10월 18일, 극락전 점안 · 낙성식
53불 봉안 · 일주문 건립 불사 회향



순천 동화사가 극락전 53불 점안과 일주문 건립 불사를 회향하며 새로운 도량의 모습을 갖췄다.

순천 동화사(주지 성문 스님)는 10월 18일 '극락전 53불 점안식 및 일주문 낙성식'을 봉행하며 53불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퍼지고, 새롭게 조성된 일주문이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서는 청정한 관문이 되기를 발원했다.

동화사는 2023년 7월 극락전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불사에 착수했다.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외부 건물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2025년 3월 공사를 재개해 2026년 9월 일주문을 완성했다. 극락전과 일주문 건립에는 도비 4억3천200만원과 시비 5억4천800만원 총 9억8천만원이 투입됐다. 이와 별도로 2025년부터 사찰 자부담 3억원을 들여 극락전 내부 불상 조성불사를 진행했다. 특히 극락전에는 기존 아미타부처님을 중심으로 53불을 새롭게 봉안해 도량의 신앙적 의미를 더했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말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불공이라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머무는 곳이 곧 극락세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BBS대구불교방송 제14대 사장에 선광 스님

임기 2028년 10월까지 2년



BBS대구불교방송 제14대 사장에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선광 스님이 선출됐다.

BBS대구불교방송은 10월 19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선광 스님을 신임 사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임기는 2028년 10월까지 2년이다.

선광 스님은 선출 직후 인사말에서 "개국 30주년을 맞은 BBS대구불교방송이 신사옥을 성공적으로 마련하고, 지역 포교와 언론 창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인현왕후 기도, 복위의식으로 되새기다

김천 청암사, 10월 18일 봉행
민요 공연 등 축하 음악회도


인현왕후가 복위 교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조선 제19대 임금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1667~1701)가 폐위의 시련 속에서도 기도와 인내로 복위를 이룬 과정을 재현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전통문화 행사가 열렸다.

김천 청암사(주지 상덕 스님)는 10월 18일 보광전과 대웅전 일원에서 '제10회 인현왕후 복위의식 재현 및 복위 축하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689년 기사환국으로 폐위된 인현왕후가 청암사 극락전에 머물며 3년간 기도한 뒤 1694년 복위한 역사적 인연을 기리고, 사찰에 전해지는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복위의식에 앞서 청암사 스님들과 함께 인현왕후의 소망과 현대인의 평안을 기원하는 '인현왕후의 기도'를 봉송했다. 이어 교지 전달 의식과 복위 행렬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가마에 연결된 기원의 줄을 함께 잡고 인현왕후의 복위를 축하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은 "인현왕후의 복위식은 간절한 기도로 오해를 풀고 행복을 이룬 뜻깊은 역사"라며 "청암사가 인현왕후의 은거와 기도가 깃든 소중한 문화 도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축사에서 "마을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한국의 도덕과 윤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번 행사가 새로운 역사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마을 축제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11개월 아기도 외국인 청년도 부처님 제자

광주전남어청련, 제13회 수계산림
10월 17일 관음사서 29명 수계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상임대표 무등 스님·이하 광주전남어청련)은 10월 17일 광주 관음사 대웅전에서 '제13회 영유아·어린이·청소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이날 수계산림에는 생후 11개월 영유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22세 외국인 청년까지 모두 29명이 수계를 받았다. 또한 부모 10여 명도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부처님의 제자로 첫발을 내딛는 자녀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수계산림은 효공 스님(녹야원)을 전계대화상으로, 무등 스님(천룡사)을 갈마아사리, 도성 스님(복암사)을 교수아사리로 모시고 진행됐다.

수계의식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호궤합장한 가운데 스님들이 수계자들의 머리에 청정수를 뿌리는 관정의식에 이어 연비의식을 진행했다. 수계자들은 계율을 받아 지니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수계첩과 염주, 기념선물이 전달됐으며, 참석한 스님들과 가족들은 박수로 새로운 불자의 탄생을 축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천 직지사 자연수목장림 '극락원' 개원

10월 17일, 개원식 및 점안식 봉행
황악산 자락 2만평 2000기 규모



천년고찰 김천 직지사가 자연과 생명의 순환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자연수목장림 '극락원(極樂園)'을 조성하고 친환경 장묘문화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장명 스님)는 10월 17일 개원식과 약사여래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극락원은 약 2만평 규모의 숲에 2000기를 안치할 수 있도록 조성됐으며, 부부목과 가족목 등 다양한 추모목을 갖췄다. 인위적인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기존 숲의 생태계를 보존해 자연의 품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에서 와서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불교의 연기법과 회향의 가르침을 일상 속 장례문화로 구현한 친환경 장묘시설이라는 게 직지사 측의 설명이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처인성서 김윤후 승장 호국정신 새기다

용인시불교사암聯 · 파라미타
10월 17~18일, 청소년 문화캠프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호스님)는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와 함께 10월 17~18일 처인성 일대와 용인 좋은절(주지 법경 스님)에서 '김윤후 스님과 함께하는 청소년 호국불교 문화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과 공동체적 가치를 알리고, 수행과 명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동국대 부속 가람고 학생 20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처인성 역사 순례, 호국불교 교육, 사찰예절 체험, 108배 명상, 걷기 명상 등 역사와 함께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처인성 전투 현장을 찾아 성터를 순례하며 주민들의 항쟁 역사를 배웠다.

다음날에는 인근 광교산에서 걷기 명상이 진행됐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범일 국사 탄신 1200주년 사업 본격 추진

범일국사선양회, 10월 14일 발표
다례재 · 학술 콘서트 등 5개 확정

통일신라시대 사굴산문(闍崛山門)의 개산조이자 강릉의 정신문화와 공동체 전통을 상징하는 범일 국사(810~889)의 삶과 사상을 기리고, 이를 현대적 문화콘텐츠로 확장하기 위한 기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범일국사선양회(회장 청우 스님)는 10월 14일 임원진 회의를 열고 '세상을 밝히는 신성한 빛, 범일 국사 탄신 12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범일 국사의 탄신 1200주년을 계기로 한국불교사와 강릉 지역사에서 차지하는 범일 국사의 역사적·정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의례 중심 기념사업에서 나아가 학술 연구와 체험, 공연을 결합해 범일 국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이해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사업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2억원이다. 국비와 강릉시비를 각각 1억원씩 투입하는 계획으로, 범일 국사 탄신 기념 다례재를 비롯해 학술 콘서트, 문화캠프, 토크콘서트, 창작공연 등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갑룡장학회, 제13회 장학금 수여식

청소년 31명에 장학금 1050만원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 스님·마이산 탑사 회주)가 10월 19일 사단법인 붓다봉사단 진안복지관에서 제13회 봉사나눔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정아현 건양대 학생을 비롯한 대학생 9명과 초·중·고등학생 22명 총 31명의 지역 청소년에게 장학금 1050만원이 전달됐다.

이사장 진성 스님은 "마이산의 돌탑이 정성으로 쌓여 굳건한 모습을 이루었듯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모여 진안군을 밝히는 희망의 탑을 쌓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따뜻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96년 설립된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는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2014년부터는 자원봉사자 가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명 금강정사, 지역 문화 거점 도약

10월 17일, '명상 힐링 콘서트'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발원"



광명 금강정사(주지 가섭 스님)는 10월 17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명상 힐링 산사콘서트 및 전통문화체험관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4회 문학으로 만드는 마음의 평안, 금강위크' 프로그램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을 앞두고 금강정사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치유 공간으로 도약하는 출발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클래식부터 대중 음악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금강정사 회주 지홍 스님은 "금강정사가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와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전통문화와 명상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열린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사람으로 다친 영혼 사람으로 위로"

강릉 현덕사, 동식물 천도재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 스님)는 10월 17일 개산 27주년 기념법회와 동·식물 천도재 '사람으로 다친 영혼 사람으로 위로'를 봉행했다.

법당 앞마당에 마련된 법단에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의 위패와 이름, 사진, 그림 등이 정성스럽게 올려져 눈길을 끌었다. 공양물 역시 동물들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마련해 먼저 떠난 생명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았다. 현덕사의 동·식물 천도재는 1999년 사찰 창건 당시부터 이어져 온 생명 존중의 실천이다.

올해 천도재 역시 반려동물과 반려식물은 물론 경찰·소방·군 구조견, 의약품 개발과 임상시험 과정에서 희생된 실험동물, 도로에서 목숨을 잃은 야생동물 등 다양한 생명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천도재에 손병우 춤 전승원의 산조춤을 시작으로 기악합주와 판소리, 남도민요, 헌화무와 살풀이춤 등이 약 50분간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동격 지사장